

한국전문신문협회, 제31대 회장에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 선출

감사에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 선출



제6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원단 및 회원사 발행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용태 신임감사, 박두환 회장, 김광탁 신임회장, 오경섭 신임감사



박두환 회장이 김광탁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전문신문협회 제31대 회장으로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이 선출됐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지난 2월 20일 협회 사옥 건물 내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협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23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감사보고에서 허과현 감사는 사업 관련 "협회 연례적인 사업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포상의 복원은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회계 관련 부분에서 협회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에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 내부시스템이 구축되길 권고했다"고 말하며 감사보고를 마쳤다. 이어 의결 안건으로 상정시킨 '2023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제30대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제31대 회장 선출을 실시했다. 자리에 참석한 회원사는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발행인을 제31대 회장으로 만

장일치 추대했다. 또한 감사선출은 추천을 통해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과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이사 등 임원 선출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해 오는 3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31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김광탁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으로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문신문협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문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진 장점을 살려 협회와 전문신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부족한 점은 회원 여

러분의 많은 조언을 구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 협회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히 잘 이끌어주신 박두환 회장님과 30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백용태 감사는 "앞으로 협회와 전문신문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이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

로 전문신문의 단합과 화합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를 진행한 박두환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며 "그동안 한국전문신문 협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참고)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 협회 주요사업

-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 라. 전문신문편람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협회, 총회 준비를 위한 '정기감사 및 정기이사회' 진행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박두환)는 제60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기감사 및 이사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먼저 1월 31일에 열린 정기감사는 이관치 감사(한국약국신문 발행인)와 허과현 감사(한국금융신문 전 발행인)의 진행으로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두환 회장을 비롯한 협회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자료를 근거로 사업부문과 회계·재정부문으로 나뉘서 감사를 진행했다.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결과 협회의 위상 제고 및 회원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의 복원을 현안과제로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회계·재정부문에서는 협회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 기준을 재정립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길 권고했다.

이날 진행한 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60차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지난 2월 6일 제24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60차 정기총회 안건(202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정관개정안 최종 상정여부 재논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어 △2023년 정기 감사 △한·일연수회 단제지원 신청 등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도 이뤄졌다.

먼저 '제60차 정기총회' 관련해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협회 명칭 변경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정관개정안' 최종 상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명칭 변경만으로 대외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빌어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협회 대외활동을 위해 공문, 명함 등에 영문명칭(Korea Professional Media Association)을 표기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회원 복지차원에서 기자증 발급 수수료를 현재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수산자원변동성 '심화'...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 개선 필요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은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부산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지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신문과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를 고도화해 수산자원변동성 심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은 권고안 이행률이 낮고 법적근거가 미약한데다 거버넌스가 부재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회복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개발처장은 "수산자원회복계획은 모든 연근해어업 관리제도의 상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 하나의 수산자원관리수단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에 대한 태스크포팀을 구성해 자원회복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수산자원회복대책 마련시 어업인을 위한 생계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재해대책법에서 수산자원감소나 원인불명의 사유로 어업수입이 급감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기 정보통신신문 명예기자 위촉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발행인 함정기)은 '제1기 정보통신신문 명예기자 위촉식'을 지난 6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은 지난해 명예기자 선발을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며, 응모자를 대상으로 4명의 명예기자를 선발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대정 대정통신 대표이사, 서영상 동양이앤씨 대표, 송윤서 조양테크 대표이사, 정병철 정음산업 대표다.(가나다순)

앞으로 명예기자들은 정보통신



산업 및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제1기 명예기자 위촉식에 이어 2023년도 우수 직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장류 세계화' 소스로 변형 수용성 높여야

식품외식경제·식품음료신문

서구화된 식단과 젊은 세대의 외면으로 국내 장류산업이 갈수록 침체를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K-푸드'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우리 장류도 이에 편승해 세계인의 식탁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식품업계 원로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간편식 비중이 늘며 식품산업 반도체로 불리는 소스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추세에 맞춰 소비 니즈에 부합하는 장류의 색다른 변신이 필요한데, 특히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우리 장류의 경우 전통성을 계승한 고유의 발효기술이 접목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대체하기 힘든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어 충분히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로들의 주장이다.

지난 1월 30일 장류협동조합과 함께 한 노변정담 토론회에서 학계·업계 원로들은 '우리 장류산업 현안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며 이 같은 주

장을 펼쳤다.국내 장류 시장규모는 2010년대 중·후반 1조2000~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현재는 약 9900억 원 규모에 머물고 있다. 반면 수출은 2020년 8600만 달러, 2022년 9500만 달러에서 작년 1조1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박형희 식품외식경제신문 발행인은 "최근 식품·외식산업의 트렌드는 크게 '헬스(Health)'와 '웰니스(Wellness)'를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이 발효 식품에 열광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 장류가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기도 해 안타깝다"며 "우리 장류의 소스화, 드레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분말화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이뤄져 해외에서 우리 장류를 먼저 찾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호 식품음료신문 발행인은 장류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조합 중심의 업계간 조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장 유형 통합 등 업계-소비자간 혼동 해결과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은 업계간 의견 조율이다. 특히 장류의 전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산분해 간장에 대해 '화학물' '화학 간장' 등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며 업계와의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산업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가 없다"며 "업계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류조합의 구심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장류업계를 비롯한 모든 식품업계가 전정부지로 치솟은 원료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조합 차원에서 국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락 현황 및 현지 물량과 가격에 대한 동향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업계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 거행

불교신문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이 '2024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을 지난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날 시상식에서 사시조 부문 당선자 김준경 씨와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김성희 씨, 동화 부문 당선자 이경아 씨에게 당선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상금은 단편소설 부문 500만원, 사시조와 동화 부문은 각각 300만원이다.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지난 1964년 시작해 38회를 맞고 있으며 불교문학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신인문학인을 발굴하는 장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2024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공모한 결과, 사시조 1500여 편을 비롯해 동화 100여 편, 단편소설 100여 편, 평론 10여 편 등 전국 각지에서 1700여 편이 응모됐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에는 시가 들어있고 단편소설로 된 일화, 그리고 이후 계승과 염불, 기도문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조가 담겨져 있다"면서 "향후 이 시대에 맞는 불교 작품을 통해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큰 울림으로 반향을 일으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운주사 천불천탑'로 당선된 김준경 씨는 수상소감으로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불교를 더 배워 더 좋은 작품을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단편소설 '나비춤'으로 수상한 김성희 씨는 "1980년대 중반 해인사 첫 수련회 때 참가해 성철스님을 친견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좋은 공덕들이 쌓여 신춘문예에 당선이라는 제 인생의 2, 3번째 기쁜 일로 전해졌다"면서 "불교문학 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제 문학이 기여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협회보 칼럼



독서신문의 새 식구, '월간독서' 인사드립니다

독서신문은 1970년 창간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독서문화 함양과 출판문화 발전에 끊임없이 매진해 왔다.

그러나 독서신문의 이런 약진에도 대한민국의 연간독서율 감소는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빠르게 책을 덮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성인 비율이 2011년 73.7%에서 2021년 46.9%로 급감했다. 이 말은 1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성인 비율이 53.1%라는 의미이다.

그나마 지난해는 독서인구가 2021년의 45.6%에 비해 48.5%로 소폭 상승하며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오히려 1인당 권수는 15.2권에서 14.8권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서량 감소세가 더욱더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책을 덮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

하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독서량 감소가 장기적인 담론 형성, 사회 통합 등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얻게 되는 확장된 정보는 연령·성별·계층별로 분열을 조장하게 돼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각계의 갑론을박이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출판계에서는 그 주요 원인이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책 확산과 플랫폼 변화, 유통 구조의 변화, 불법복제, 심지어는 소득 감소, 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출판계 내에서도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출판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이 출간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만 출간된 책이 무려 41,091종에 달하고 있다. 물론 많은 책이 출간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의 일

부가 책다운 책으로서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디지털시대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올바른 정보의 선택을 방해하듯 과도하게 비대해진 출판시장에서 쏟아지는 책의 홍수 또한 '독자가 양서를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독자가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큐레이터로서의 독서신문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독서신문은 2017년부터 독자들의 편한 소지와 읽기를 강조하며 기존의 타블로이드 판형 제작 시스템을 벗어나 잡지 판형으로 혁신적 변화를 꾀했다. 그 결과 독자에게 더욱더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급격한 독서율 하락은 독서신문에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서신문의 잡지 판형 제호를 월간 독서로 바꾸며 '제2의 혁신'을 꾀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의 발로이다.

이제 독서신문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인터넷판 독서신문을 유지한 채, 잡지 판형으로서의 '월간독서'를 독자들에게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월간독서는 기존 콘텐츠의 전문성 보강은 물론, 세대와 성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과 출판·교육·예술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 외부 필진의 적극적인 영입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출판계 유일한 언론지로서 출판계의 권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연결하는 소통과 협업의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1등 문화예술지'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문학적 지성과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인격 함양을 위한 본질적 사명에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독서신문 독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오는 반세기를 시작하는 월간독서에 더욱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바란다.

방재홍 상임고문(독서신문 발행인)

협회, 2월 전문신문 건강걷기 개최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전문신문 건강걷기'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3일 진행했으며,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에서 모여 창경궁을 찾아 지식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지는 코스를 트레킹하며 격무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났다.

다음 일정은 오는 3월 2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코스는 지하철 3호선 일원역에서 시작해 대

모산을 등산할 예정이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보 칼럼모집

- ◆ 원고내용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 대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접수방법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 문의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리비옴’ 더 강력한 eLBP 마이크로바이옴이 온다

약업신문

약업신문(발행인 함용헌)이 선정하는 ‘바이오 라이징스타’ 세 번째 기업으로 ‘eLBP(engineered Live Biotherapeutic Products, 미생물유전자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기업 ‘리비옴’이 선정됐다.

리비옴은 보툴리눔 독소 제품 유명 기업 메디톡스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과 제반 기술을 이전받고, 2021년 설립된 미생

물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리비옴은 균주 라이브러리 선별 플랫폼 nLBP와 선별 균주 미생물 유전자 엔지니어링(Engineering) 플랫폼 eLBP를 기반으로 DualSET(듀얼셋) 시스템을 구축,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다. 인체 내 공생하는 모든 미생물 군집 또는 군집의 유전

정보 전체를 가리킨다.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무게는 1.5~2kg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체 주요 장기인 뇌 1.3kg, 간 1.5kg과 비슷 수준으로 일각에선 제2의 장기라고까지 평가한다.

약업신문과 선정위원들은 바이오 라이징스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달리티(Modality, 혁신 치료 기술 총칭)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정, 이 분야에 속하는 ΔLBP(Live Biotherapeutic Products, 생

균치료제) ΔeLBP(engineered LiveBiotherapeutic Products, 유전자재조합 기반 생균치료제) ΔEV(Extracellular Vesicle) ΔExosome 등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 중이다. 선정위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협회 및 조합, 학회, 임상 현장, 투자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바이오 라이징스타는 ΔEV 신약 개발 MD헬스케어 △이뮤노바이옴이 선정됐다.



한편 약업신문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을 바이오 라이징스타로 선정, 제2의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대응제약, 한미약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파트너로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새 중앙회장에 노만호 후보 당선

농업인신문



농업인신문을 발행하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의 새 중앙회장으로 노만호 후보

〈사진〉가 당선됐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제60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24대 임원 선거’를 경기도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지난 2월 5일 열고 제24대 임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대의원 284명 중 277명이 참여했다.

중앙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곽달규 후보(전 강원특별자치도회장), 기호 2번 노만호 후보(전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기호 3번 박대조 후보(전 중앙회장)가 24대 중앙연합회장 선거에 각축을 벌였다. 개표 결과 노만호

후보가 제24대 중앙연합회장에 당선됐다.

노만호 중앙회장 당선자는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전 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전 유성농협 감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사, 농업인신문 이사 등을 역임했다. 노 중앙회장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 근거 마련 △농정개혁 활동 강화 △농민회관 부지 활용 방안 강화 △지역 대의원 소통 강화 △77주년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성공 개최 등을 내세웠다.

노만호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현재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의 지역조직 강화를 통하여 한국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인 제도 마련 및 권익신장을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단독 출마한 여성부회장을 제외한 4명을 선출하는 부회장에 기호 1번 김도일 후보(전 충남연합회 수석부회장), 기호 2번 김중근 후보(전 경기도연합회 수석부회장), 기호 3번 강평원 후보(전 전남장흥군회장), 기호 4번 배선관 후보(전 대구광역시연합회장), 기호 5번 양산해 후보(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기호 6번 노인두(전 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등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각축을 벌였다.

개표 결과 수석부회장에 양산해 후보, 사업부회장에 강평원 후보, 정책부회장에 노인두 후보, 대외협력부회장에 배선관 후보가 당선됐으며, 여성 부회장은 이희연 후보(전 중앙연합회 여성부회장)가 당선됐다.

감사는 박준호(전 남원시연합회장), 박흥서(전 인천광역시연합회장), 정성도(전 광주광역시연합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간호협회 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승계

간호사신문



간호사신문을 발행하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지난 2월 6일 일신상의 이

유로 사임하면서 탁영란 제1부회장(사진)이 회장직을 승계했다. 또 제1부회장은 손혜숙 제2부회장이 승계했다.

간호협회 정관에는 회장이 공석일 때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교총, 여난실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수행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육신문을 발행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제22대 총선 출

마를 위해 지난 1월 5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공석이 된 한국교총 회장직은 여난실 수석부회장(사진)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정 전 회장은 “서울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무너진 교원과 붕괴된 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입법이 얼마나 중

요한지 절감하게 됐다”며 “교총이 전국 교원들과 한뜻으로 행동해 교권4법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새 전기를 마련했지만 아직 온전한 교육권 보장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자였고 앞으로도 현장을 대변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라면서 “오직 학교를 살리고, 학생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을 소명으로 삼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교총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여 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 선·후배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원을 확립하고, 올 4월 총선이 교육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신문 발전 한마음으로 기원

기독교신문

기독교신문(발행인 오정호)은 신문사 설립 기념일을 맞아 역대 이사장 사장 초청 간담회를 지난 1월 4일과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이사장 사장들은 1965년 1월 4일 창립 이래 6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기독교신문을 축복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설 이사장의 인도로 드린 1부 예배에서 오정호 총회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신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총회장은 “기독교신문은 교단을 대표하는 기관지이며, 특별히 교단이 위기에 처할 때 빛을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론을 펼치라”고 강조했다.

2부 간담회는 이사회 서기 함성



의 목사의 기독교신문 역사 소개, 사장 태준호 장로의 인사말, 신문사와 CTV 소개 등으로 진행했다. 사장 태준호 장로는 “기독교신문이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신문사의 역사를 이끌었던 이사장 사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기독교신문은 문서선교를 넘어 영상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바 이를 이해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태 사장은 “기독교신문은 2022년 10

월 문서선교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는 한편, 열약했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상반기 중에 재정 정상화를 이루고 도약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역대 이사장과 사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총회 지원과 독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진이 관심을 더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회원사 원고모집

- ◆ 원고내용 : 형식 및 소재에 제한 없음 (보도자료, 발행인 동정, 회원사 미담사례, 특종 기사 소개, 칼럼, 시, 수필 등)
- ◆ 대상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접수방법 :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 일 kosna1964@naver.com
- ◆ 문의 : ☎ 02-334-7251~2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36주년 기념사]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양병희 대표이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온 기독교연합신문이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정론 직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교회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언론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온 우리 임직원들께도 고마움을 나눕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사시를 바탕으로 1988년 창간했습니다. 엄혹했던 시절이 지나고 국민주권이 회복될 때 기독교연합신문은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살리는 신문, 진실과 정의를 실천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36년 세월 동안 기독교연합신문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단단히 기초를 쌓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발행인 장중현 목사의 아낌없는 기도와 물심양면 헌신이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는 삼겹줄을 이룬 한 가족으로서 기독교연합신문과

동행해주었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상 속으로 전파하는 데 동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실추된 예배의 위상을 되돌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가까이 손을 맞잡겠습니다.

기독교 언론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언론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뉴미디어가 발전하고 다양한 언론매체가 등장하면서, 공신력 있는 언론을 구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보도와 신뢰할 만한 기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인공지능 AI가 나타나면서 언론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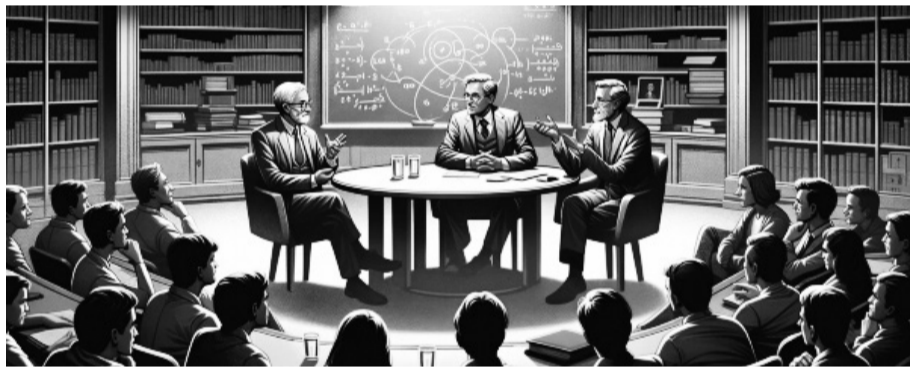
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달로 믿음이 위협받고 인간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하게 경계하면서, 동시에 기술에 대해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정신이 지금 우리 신앙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기독교 언론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는지 기록하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인류의 소망임을 선포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창간 36주년을 맞이까지 기도해주시고 후원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도 하락·탈종교화 파도... 교회 본질 지키며 변화 꾀해야”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읽고 미래를 예측할 석학과 목회자를 온라인으로 만났다. 사우스버지니아대학 김석진 교수와 뉴저지 하모니커뮤니티교회 고지훈 목사, 크레스트뷰신학대학 최정식 박사를 모시고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해봤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려면 코로나19를 빠뜨리고 이야기하기 힘들 텐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주목할 만한 지표 중 하나는 개신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정식 박사: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로도 다루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성직자와 교회의 종직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제되지 않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교회가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교회나 기독교인이나 모두 자기 이익을 잘 찾아간다는 이야기겠지요. 교회가 사회에서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모두 전도, 선교 등으로 포장되니 사람들이 진정성을 믿어 주지 않습니다.

김석진 교수: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재정 부정, 성적 비행, 교회의 정치적 개입이 신뢰도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요. 현대 사회의 가치와 한국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양성, 포용성, 개인의 자유에 가치를 둔 것에 반해 교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중에서도 기독교 신앙과 교인들의 일상생활

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최근 신뢰도 하락은 대중들이 신도들의 행동과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가르침 사이에서 불일치를 감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봅니다.

“개신교의 신뢰도는 3대 종단으로 불리는 천주교, 불교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고지훈 목사: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뢰도 회복의 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당연하게도 죄를 짓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이나 기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는 성경적 진리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구현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신실하며 정확하게 가르치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충실한 해설을 통해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재발견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더십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은혜, 용서의 문화를 조성하는 일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년 감소와 대칭되는 또 다른 이슈는 고령화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노년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버목회’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석진 교수: 이제는 고령 인구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교회가 할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지원과 가정 방문, 돌봄 등 고령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고지훈 목사: 노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져다주는 지혜와 경험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통찰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면 회중 전체의 영적 성장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만나 서로 배우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활기차고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최정식 박사: 교회에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분들의 의식만 바뀌도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취적인 생각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에 대한 책임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진단과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해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3가지 영역이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교수: 첫째는 디지털 기술과 활용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소셜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교회 행정, 교육, 전도 방식의 혁신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요. 둘째는 세대 간 소통과 젊은 세대와의 연결입니다.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론 환경, 사회 정의, 인권 증진, 빈곤 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훈 목사: ‘제자훈련’과 ‘전도’, 그리고 ‘사회 정의와 연민’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훈련 이후엔 지상 명령에 순종해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도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정식 박사: 교회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 구조조정 문제

도 주목해야 할 과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폐쇄되거나 통합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작은 교회를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교회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3040 세대에 대한 목회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는 교회를 원한다

무던하게 진행되는 패널 토의에서 무언가 이질감을 느꼈다면 박수를 보낸다. 3명의 전문가가 모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 안에 ‘진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 나머지 두 패널의 실체는 생성형 AI 챗봇에 질문해 받아낸 답변을 취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면 잠시 스크롤을 내리기 전 시선을 다시 올려 답변들을 찬찬히 살펴보자. 고지훈 목사와 김석진 교수, 최정식 박사 중 누가 ‘진짜 사람’일까.

방송이었다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멘트와 함께 시간을 끌며 긴장감을 조성해왔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기사로는 구현할 수 없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곧장 정답을 밝히자면 세 명의 패널 중 ‘최정식 박사’만이 유일한 사람이다. ‘최정식 박사’ 배역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가 맡아 두 기계 문명에 맞서 홀로 분투해 주셨다. ‘김석진 교수’의 정체는 가장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 4.0’, ‘고지훈 목사’의 정체는 크리스천 데일리 앱 ‘초원’이다. 패널들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사우스버지니아대학’과 ‘뉴저지 하모니커 커뮤니티교회’, ‘크레스트뷰신학대학’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관들이다.

마냥 웃어넘길 소재만은 아니다. ‘김석진 교수’와 ‘고지훈 목사’의 답변은 패널 토의라는 그릇에 맞게 문체만 다듬었을 뿐 챗GPT와 초원의 대답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답변의 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챗GPT의 답변은 비기독교인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제3자의 시선인 반면, 크리스천을 위한 앱인 초원의 답변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된다. 여기서 교회와 크리스천이 새로운 기술, 특히 AI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가 나온다. 이번 토의에서는 생성형 AI의 한계도 관찰된다.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취합해 가장 보편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답변을 제시할 뿐 새롭고 날카로운 시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AI의 답변을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외식업 경영주 65.7% “2024년도 외식업계 더 어렵다”

식품외식경제

식품외식경제와 자매지 월간식당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독자들을 대상으로 '2024 외식업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조사됐으며 총 326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엔데믹 이후 호황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힘들었던 2023년을 보낸 외식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올해 외식업 경기에 대한 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마련했다.

초가성비와 초고가 공존... '딜빌'

2023년 외식업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딜놈될(되는 곳만 된다)'의 끝판이었다. 2022년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소비심리의 여파로 외식업계에도 잠시 훈풍이 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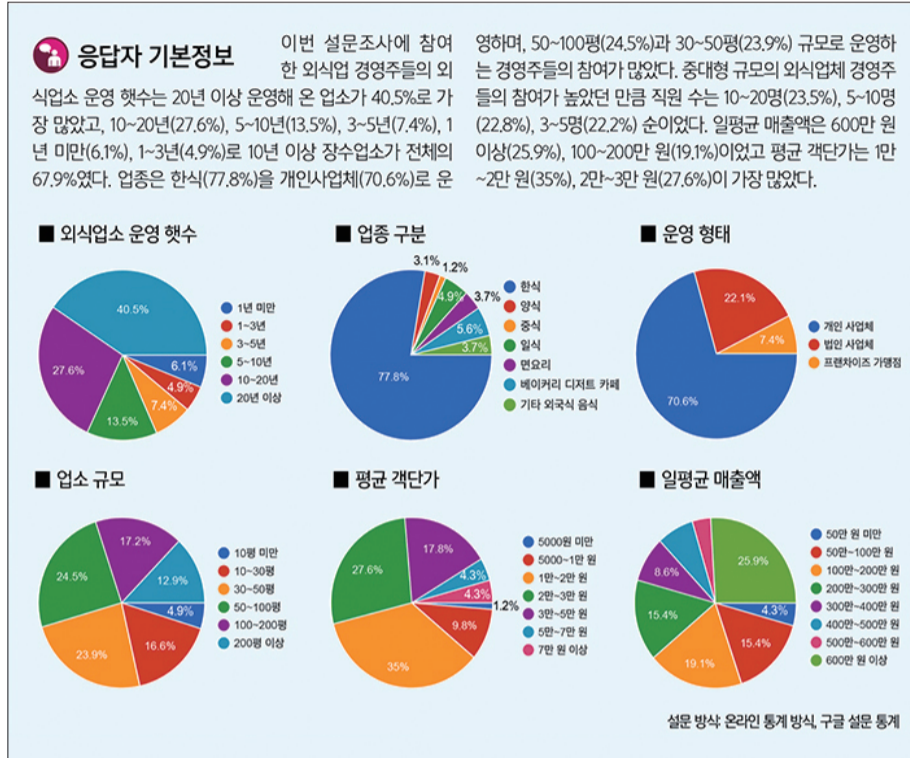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 이 한 끼에 사용하는 비용도 철저히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지기 시작했다.

외식도 평소에는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우는 초가성비를 추구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초고가의 음식이나 트렌디한 음식을 소비하는 등 양극화된 소비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식업계를 보면 일부 잘되는 업소는 일일 대기 번호가 180~200번 대까지 길게 이어지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은 10~20%의 매출 하락을 겪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도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가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월 평균 매출 감소 51%, 증가는 37%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대비 2023년 외식업소의 월 평균 매출액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50.7%, 증가했다 36.8%, 동일하다 12.5%였다. 이 가운데 10% 미만 감소(16.3%), 10~20% 미만 감소(16.9%), 20~30%



미만 감소(12.5%), 30% 이상 감소는 5%였다.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10% 미만 증가(15%), 10~20% 미만 증가(13.7%), 20~30% 미만 증가(6.3%), 30% 이상 증가는 1.9%였다. 전년 대비 고객 수도 감소했다(55.6%)가 증가했다(30%), 동일하다(14.4%)보다 높았다. 고객 수 20% 이상 감소(16.9%)는 매출 감소 폭과 비슷했으나, 고객 수 20% 이상 증가는 4.3%로 매출 증가율(8.2%)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상승이 애로사항

지속되는 외식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82.6%)과 내수경기 침체(5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재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의 원인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는 등 긴축 소비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져 외식업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맞벌이 등 사회인구의 변화(14.3%)에 따른 HMR·밀키트·편의점 도시락 등 증가(9.9%), 재택근무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객수 감소(3.7%)는 향후 지속적으로 외식업 경영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외에 정치 경제정책의 불안정(15.5%)과 김영란법의 영향 지속(1.9%) 순이었다.

외식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상승(71.8%)과 원부자재 비용 상승(52.1%)이었다. 경영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도 구인난(35.6%)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밖에 물가인상(27%), 금리인상(12.9%), 업종 간 경쟁 심화(9.8%), 임대료 상승(8.6%)을 꼽았다.

SNS 홍보 마케팅, 가성비 높은 메뉴 중요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마케팅 방법은 SNS 홍보 마케팅 강화(43.5%)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이 외식업소를 선택할 때 SNS에 많이 노출된 업소를 찾으면서 신규 매장 출점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 외식업소도 이제 SNS 홍보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이어 서비스 강화(41.6%), 메뉴 품질 강화(40.4%), 신메뉴 개발(23.6%), 인테리어 및 시설 보완(16.1%) 등 외식업 경영의 기본인 QSC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단골고객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고객 관리 강화(24.8%), 메뉴 가격 인하 또는 할인(11.8%)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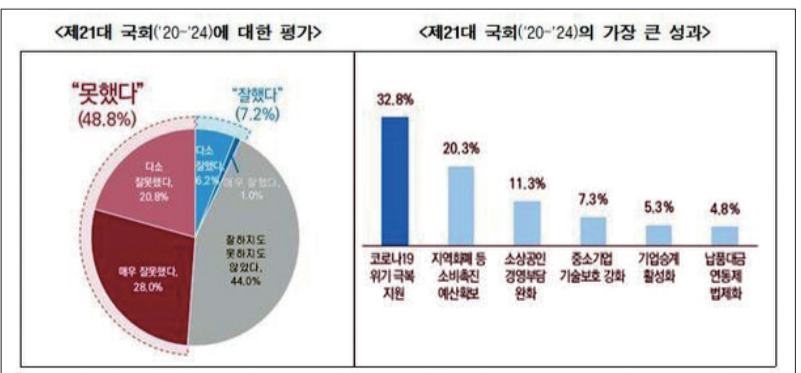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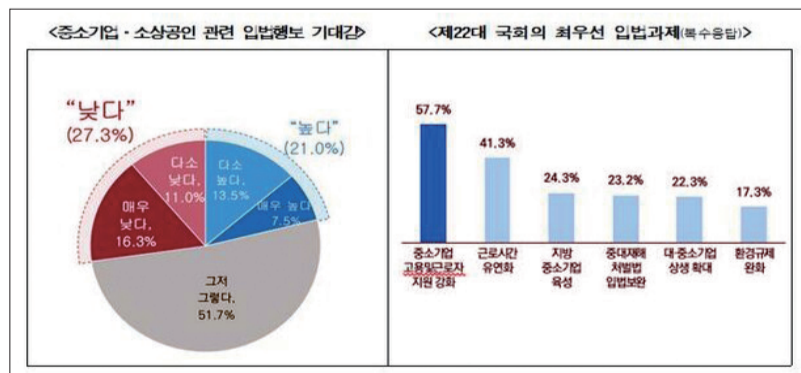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성공적인 외식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성비 높은 메뉴 경쟁력 향상(60%),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 등 유통 경쟁력 강화(23.8%)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업소의 상징이자 대표 상품인 메뉴의 경쟁력이 곧 업소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아울러 서비스 수준 향상(30%)과 직원교육 등 인력관리 강화(30%)에 대한 중요성도 나타났다.

성공적인 외식업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활성화와 수익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외식업 경영주들은 영업활성화를 위한 SNS 홍보 마케팅 강화(36.5%)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RMR, 밀키트 등 부가상품 개발(8.8%), 푸드테크 도입 등 운영시스템 강화(7.5%)에 관심이 높았다. 무엇보다 외식업은 인적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직원 복지수준 향상 등 처우 개선(11.9%)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외식업 경영주의 65.7% 올해 더 힘들 것

이번 설문에 참여한 외식업 경영주의 65.7%가 2024년에는 외식업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49.7%), 지난해에 비해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8.6%로 다소 회복될 것이다(7.4%),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다(1.2%)였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잘 모르겠다 2.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제22대 국회 입법 기대감 낮아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차기(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에 대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

(21.0%)는 의견보다 많이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2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

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추문급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데에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 수첩

화훼 업계 배제한 SECA 체결

원예산업신문 권성한 기자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을 두고 전국 화훼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화훼 수출국으로 협정 발효 후 대량의 꽃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화훼산업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22년 에콰도르 화훼수출액은 2021년 대비 8% 증가해 약 1조3,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국내 판매액 5,651억 원 대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화훼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수요가 늘고 있어 에콰도르 화훼수출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협상을 시작으로 7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1일 에콰도르와 SECA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장미·카네이션·국화·튤립 등 절화류는 현행 25%의 관세율을 12~15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이를 두고 농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통상 FTA를 체결할 때 각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화훼 업계와는 상의가 전혀 이뤄지

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SECA 체결에 대해 화훼 업계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FTA 체결 당시에도 정부는 화훼 업계를 등한시 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5년 발효된 중국, 베트남 FTA와 2016년 발효된 콜롬비아와의 FTA 이후 대량의 무관세·저관세 절화가 수입돼 국내 화훼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동안 국익을 명분으로 다국간 FTA가 체결 되면서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SECA 역시 그럴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식 발효 전까지 철저한 피해 조사·평가 및 화훼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007 작전 방불케한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

의학신문 이승덕 기자

“007작전도 아니고 의료현안협의체 장소가 변경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협의체 파행 이후에 한 말처럼, 급박하게 흘러간 의대정원 확대안의 의사결정은 ‘007작전’처럼 비밀스럽게,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2월 6일 10시 의료현안협의체(파행)→14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15시 최종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결정이 숨가쁘게 이뤄진 이날 일정은 보건복지부의 조급함이 보인다.

의대정원의 가장 큰 당사자인 의협에게는 제대로 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규모를 논의하자고 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의견제시만을 요구받은 것.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의협이 적정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미 정원 확대가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했다더라도 ‘의견을 수용했다’는 구호 외에 얼마만큼 의견이 피력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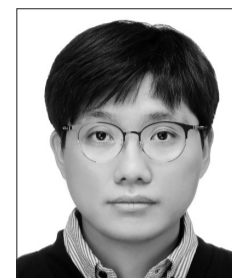
의문스러운 점은 앞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4일에 긴급발표되고, 하루만에 결정된 협의체-보

정심-발표 일정 역시 갑자기 하루 전에 안내됐다는 것이다.

회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취재현장을 따라가던 기자들도 이렇게까지 비밀리에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 당황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굳이 일요일이어야 하는 궁금증은 제껴두더라도)12월부터 계획이 지연됐던 2차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서두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대정원 확대안 논의 발표 일정은 왜 그렇게 급하게 이뤄졌어야 했나.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4월까지만 교육부에 정원확대안을 넘기면 된다’며 여유있게 논의할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갑자기 서둘러서 의견을 수집하고 다급하게 발표할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고령화 가속 ‘간병문제’ 대안 마련해야

보건신문 홍유식 기자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잇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요양병원내 환자 폭행 또는 학대 사건들로 인해 ‘고려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전문가들은 예방책으로 요양시설 내 교육 강화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관련 법 적용이 다른 제도적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실 내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사적간병’이 주를 이루는 간병시스템을 지적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민간단체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행히도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병 문제를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이른바 ‘간병 파산’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뒤늦게나마 국가가 나섰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성 있는 자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월동무, 가격 안정 위해서는 또다른 대책 필요

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제주 월동무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으면서 수급 안정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거래된 도매(20kg·상급) 기준 1월 3일 1만334원, 1월 4일 9502원, 1월 6일 9005원, 1월 10일 8769원, 1월 12일 7937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제주 농민들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또한 정부에서도 6000톤의 무를 수매하고, 오영훈 제주 도지사는 자율 감축을 진행할 작업단 운영경비 62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관측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농산물 재배 면적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드론 등을 활용해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한 수요 판단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산지에서의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주산지 협의회를 통해 면적 축소를 권고하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농사를 짓게 돼 항상 과잉 생산이 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문제는 수확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무 가격은 지난해 가을부터 문제였다. 정부는 무 물량이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폐기 혹은 수매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무 재배 농가들은 수확 시기를 늦췄다. 수확 시기를 늦추다 보니 무게가 점점 늘어나 생산량이 늘어났다.

특히 무 재배 종사자들은 작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날씨가 예년에 비해 따뜻해 모든 농가의 작황이 좋아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졌다고도 추론했다. 가격이 오르면 희소 가치가 있고,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대동소이해 가격이 함께 낮아졌다는 평가다.

앞서 언급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하루빨리 제주 농가를 비롯한 무 농가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60차 정기총회 및 2024 주요사업·일정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문신문 위상 제고에 주력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아오며 한국전문신문협회(이하 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올 한해 협회는 전문신문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준비가 시작됐다.

먼저 제30대 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1대 회장 선거를 통해 김광택 내외뉴스통신 발행인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신임 감사로는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과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이 선출됐다. 부회장과 이사 등을 포함한 새 집행부 구성은 오는 3월에 열릴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협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전문신문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다시 재개한 일본전문신문협회와의 대면 교류를 이어가 한·일 합동연수회를 개최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본 협회보는 지난 제60차 정기총회와 2024년 협회 주요 사업과 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회원사 발행인이 총회 입장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모든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광택 후보자와 박두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과환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 박두환 회장 개회사



2년 전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협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협회의 오랜 역사에 누가 되진 않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올해는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인 만큼 그동안 선배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과 임기 동안 협조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차기 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주려 합니다. 계속해서 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차기 집행부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협회가 전문언론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쌓을 수 있게 길을 닦아주신 전문언론 선배님들의 노고에 귀감이 되어 후배들이 이를 본받아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택 신임회장 당선인사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회장을 맡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박두환 회장님을 비롯한 현 집행부 임원단이 협회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운영하셨는지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처해 있는 위기 속에서 협회 회장님의 부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협회 활동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전문언론인으로 지내온 경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현재 전문신문 앞에 놓인 위기는 인터넷을 넘어 인공지능(AI)으로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언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자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있음에도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하는 공약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박두환 회장이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잘하는 일을 살려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부족한 부분은 회원사 여러분의 조언을 들으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의 60년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용태 신임감사 당선인사



협회를 사랑했고 지금까지도 협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감사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협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경섭 신임감사 당선인사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감사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며 이승만 전 대통령님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협회가 하나로 뭉칠 때 일조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2024년 주요일정(예정)

월	일정
2월	정기총회 - 협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2023년 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 승인, 제31대 회장 선출 등 총회 개최
3월	임원 간담회 - 총회를 통해 선출 및 구성된 새로운 집행부 임원 간의 친목 도모 및 전문언론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계기 마련
5~6월	한·일 합동연수회(경영인 세미나) - 한국과 일본 양국 협회의 정보교류를 통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전 방향 모색
7~9월 중	전문신문 기자연수 - 전문기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교육을 실시
10~11월	국제교류 - 10월~11월 각 1회씩 한·일 양국협회의 기념식 행사 참석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양국 전문신문의 정보교환은 물론 각국의 전문신문 공동발전과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세계전문협회설립의 단초를 마련
11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 11월 21일, 창립 60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전문신문에 대한 홍보와 전문언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 개최



제60차 정기총회 전경



제31대 김광택 신임회장이 박두환 회장에게 전달받은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 주요사업

전문신문 발전 및 위상제고 위한 대내외적 활동

일본전문신문협회 교류 통한 국제활동 강화= 협회는 지난해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라 얼어붙은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 역시 한·일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협회는 일본전문신문협회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양국의 전문신문에 대한 정보 교류와 친목을 다져왔다.

이후 2000년을 기점으로 더 발전된 교류를 위해 한·일 합동연수회(이하 합동연수회)를 개최해 양국의 전문 언론 산업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폭 넓은 관계를 이어갔다. 합동연수회는 5주년에 양국 협회가 각 1회씩 주기를 두고 개최해왔다.

그러나 2022년 협회가 주최국으로 열려야 했던 합동연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선언과 함께 지난해 합동연수회 개최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 협회가 논의한 결과 개최지는 경북 경주시로 정해졌으며, 자세한 세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양국 협회는 매년 10월 일본협회에서 주최하는 ‘일본전문신문대회’, 11월 한국협회에서 주최하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임원진을 초청해 자리를 빛내며 국제적 위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역시 양국 협회 간 초청 의사를 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한 내실화 제고= 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신문 경영인 세미나’는 ‘한·일 합동연수회’ 개최로 대신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신문 기자연수’를 오는 7-9월 중에 개최한다. 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문신문 기자연수는 전문신문 언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기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2022년은 온라인 연수로 진행됐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전문신문 편람 및 협회보 발행 △정기간행물 납본 업무 대행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뉴미디어진흥위원회, 중소기업발전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전문언론인 좌담회 등을 실시한다.

우수기사상 제정을 통한 뉴스콘텐츠 발굴= 협회는 ‘정부포상’ ‘동암언론상’ ‘한국전문신문상’에 이어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해 ‘우수기사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전문신문 매체에서 발굴해 낸 특종기사를 비롯한 우수 기획·특집 연재 기사를 선정해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취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1회 우수기사상 시상식을 지난해 7월 개최했다. 총 6개 분야(의료, 종교, 교육, 건설, 교통·에너지, 금융·세무)에서 추천서를 접수 받았다.

이후 협회는 오경섭 이사(일요일저널 발행인), 방두철 이사(서울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하현봉 상근부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기준은 △기획기사(독창성) △과급 및 영향력 △공감성 △문장력 등이다.

그 결과 첫 우수기사로 △30년 이상 장기사용공급설비 교체사업 해법(가스신문 주병국 기자) △코로나 속 등장 스마트병원 환자 중심으로 확산(의학신문 이승덕 기자) 등 2건이 선정됐다.

협회는 올해도 우수기사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세부사항 논의

후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언론 발전에 공헌한 전문언론인을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은 1995년 이전까지 신문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그러나 1995년 10월 24일 ‘제1회 전문신문의 날’이 개최되며 시상식 역시 함께 열렸다. 또한 동암언론상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을 주도한 故 함승기 회장(약업신문 창업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8년 제정됐으며, 약업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회원 간 정보교류 및 소통 창구 역할

전문신문뉴스포털 ‘스페셜뉴스’ 운영= 협회는 뉴미디어사업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전문신문뉴스포털 형식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스페셜뉴스’(www.promedia.kr)는 협회가 회원사와 제휴를 맺어 각 산업별 전문 기사들을 한 자리에 모은 국내 유일한 전문신문 포털사이트이다. 각 카테고리는 △농수축산 △의약 △중고 △교육 △건설 △식품 △패션·뷰티 △교통·에너지 △금융·세무 △라이프·경제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협회 사무국은 전문신문 매체와 포털 간 홈페이지 링크 연동 작업에 더 많은 회원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링크 연동은 각 회원사 담당자가 협회 사무국으로 홈페이지를 관리 하고 있는 솔루션 업체 담당자와 연락처를 전달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협회 사무국은 “회원사와 일반 독자에게 전문신문을 더 정확하게 알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전문신문과 협회 및 회원사 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사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링크 연동으로 인해 가중되는 업무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스페셜뉴스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대국민적 홍보와 전문언론 위상을 높이는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많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신문협회 네이버 밴드 운영= 협회는 전문신문뉴스포털 스페셜뉴스와 함께 ‘(사)한국전문신문협회’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협회와 회원사 간 원활한 커뮤니티를 위한 열린 광장으로 정보교류는 물론 친목도모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개설했다.

밴드 참여는 각 회원사(정회원)마다 2인으로 한정하며, 대표이사 및 발행인 또는 편집인과 편집국장 중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협회장이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도 참여 가능하다. 모든 참가자의 닉네임은 매체명과 실명으로 표기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또한 게재금지 사항으로는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음란한 내용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여 논란이 야기되는 내용 △회원사 상호간 비방 행위,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 등 △기타 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단합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동호회 운영= 협회는 스트레스와 격무에 지치기 쉬운 전문언론인들의 건강증진과 친목에 기여하고자 ‘전문신문산우회’와 ‘전문신문골프동우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우회 참여는 회

원사 발행인·대표이사·임원 등 관계자면 가능하다.

현재 산우회는 그동안 ‘전문신문 견기대회’ 등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올해 ‘전문신문신문인 트래킹’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골프동우회도 회원 간 스케줄을 맞춰 정기라운딩을 실시하며, 매년 연말에 협회 회장배 ‘전문신문 골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홍보 연중 캠페인 진행

협회는 전문신문 홍보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 제215차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신문 홍보 공동 캠페인’ 안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 의결 당시 양영근 회장은 “전문신문에 광고를 하는 효과에 대한 10가지 논리를 앞서워 광고 문안을 생각해봤다”며 “이를 캠페인으로 회원사 모두가 함께 진행하면 전문신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회원사의 위상이 높아져 비회원사에도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신문 홍보 캠페인을 위한 광고는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주제로 5단 및 전면 광고 각 2종류씩 총 4종으로 선보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해당 광고파일을 협회 웹하드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

1.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2.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시장이 명확하다. 광고 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4.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5.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6.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7.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에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8.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9.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10.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캠페인과 관련해 협회 사무국은 “전문신문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보다 많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현장·단독 |

터전 뺏긴 車매매상들... '건물주' 금융사들 보증금 '나몰라라'



“그들에게 보증금 몇 푼이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에게 목숨이 걸린 일이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언제 확답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건물주인 금융사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수 백억원대의 보증금 미지급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대규모 자동차매매단지 내 입주 업체들이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6일 오전 집회가 진행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IBK자산운용과 수탁사 측에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K자동차매매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들의 피켓이 줄지어 있었다.

이들은 보증금 지급 의무의 당사자인 자산운용사 IBK자

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은 피해대책위 구성과 함께 보증금 미반환분에 대한 신속한 반환 조치와 그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 매매업체 대표 B씨는 “이번 단체행동은 임대 계약의 주체인 IBK자산운용과 수탁사에 대한 금감원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수년간 문제가 돼 온 전세 사기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

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2000여 명의 매매업체 직원 중 절반가량이 이미 사업장에서 떠난 상황이다. 이에 대다수 입주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하지도, 퇴실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계속해서 불어나는 금융 부담과 영업을 이어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손실 등의 피해를 입주 업체들이 온전히 떠안게 됐다.

특히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사전에 파악한 일부 보증금 캐피탈사들이 돈을 빌려 간 입주업체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중이다.

무엇보다 다음 달 중 입주 업체들 대다수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실질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증금 미지급 규모만 150억원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들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그 피해를 입주 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직도 IBK자산운용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지 않다. 계약당사자인 수탁은행은 신탁사업자라는 입장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 유지하고 있어 피해 입주 업체들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집회·시위 등 본격적인 집단 대응을 통해 계약주체인 IBK자산운용, 수탁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으로, 이번 금감원 집회를 시작으로 해당 금융사 본사에서 추후 추가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사제공: 이뉴스투데이(2월 6일) 고선호 기자

제2차 건보종합계획?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2008년, 백지영의 노래 총맞은 것처럼 이별을 겪은 연인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가사로 히트를 쳤다. 특히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이란 도입부는 지금도 인용될 만큼 유명한 가사다.

갑자기 14년 전 노래를 소환한 이유가 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제약 업계 약가 담당자(MA)들의 심정이 ‘총 맞은 것처럼’ 속 가사와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2019년 당시 1차 종합계획이 전해졌을 당시 총맞은 것처럼 아파했던 그들에게서 이제는 쓴웃음마저 보인다. “도대체 언제까지 깎을 것인가”라는 한탄이 묻어 난 웃음이다.

지난 4일 “제2차 건보종합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업계 시선은 “보험 약가 지출 효율화”라는 키워드에 쏠렸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신약 약가 우대 등의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약가 지출 효율화의 다른 이름이 약가 인하다. 그것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수많은 약가 인하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추가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보험 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먼저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의 질과 비용을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관리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합리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건보종합계획에 반영됐다.

그중에서도 업계의 눈길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구조



개편 검토”라는 대목에 쏠렸다.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형제약사의 약가 담당자는 “기등재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가 끝나고 3월 1일자로 약가 인하가 예정됐었는데 또 다시 약가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발표 안에서 약가 구조 개편 검토란 내용을 확인한 순간 어안이 병병해서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현행 계단식 약가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의뢰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막상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힘이 빠진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0년 7월 계단식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기등재 제네릭 재평가를 예고한 이후 지난해 1차와 2차 재평가(2020년 8월 이전 등재 약제)를 마무리했다.

1차 평가 결과, 약 7000여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됐고 최근 2차 재평가를 완료하면서 약 1000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철폐를 맞았다.

복지부가 내세운 명분은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직접생산’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갖춘 제네릭에 오리지널 약가의 53.55%(피스트부터 20번째까지)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에 따라 재평가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률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약가 합리화”를 위해 약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품질 개선을 위해 자체생동과 DMF 등록이란 명분을 내세웠고 제약사들이 이를 만족하려고 치열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또 다시 약가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약가 구조 개편의 ‘대상’이 불분명한 탓에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의 약가 담당자는 “이미 기등재 재평가로 깎인 약제들이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신규로 진입하는 제네릭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연구 용역 결과가 3월달에 공개되고 연말에 시행안이 확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시기 맞물린다. 깎고 또 깎는다는 것인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라하면 제약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을’의 위치”라며 “매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어차피 복지부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약가 정책의 명분과 예측가능성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약사신문(2월 16일) 최선재 기자

| 현장·단독 |

한중·미중 관계 악화에 한중카페리선 직격탄

한중 국제여객선(카페리선) 업계가 급격한 물동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재개한 여객 운송 사업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운항하는 15개 카페리 노선의 컨테이너 수송 물동량은 52만 4800TEU를 기록, 2022년의 62만2800TEU에서 16% 감소했다. 지난해 물동량 실적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간 실적은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모두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국 경기 둔화와 한중·미중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카페리선사 고위 임원은 “중국 내 공장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한 데다 한중 관계 악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싼 카페리선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선사 관계자는 “미중 관계 악화로 카페리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미국으로 환적 운송되던 화물들이 크게 감소한 것도 물동량 침체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노선이 뒷걸음질 행보를 보였다. 특히 2022년 상위권을 형성했던 노선의 감소 폭이 컸다. 화동해운의 인천-스다오가 3% 성장한 5만5500TEU를 수송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3위에서 상대적으로 감소율을 낮추며 1위에 올랐다. 연운항해의 인천-렌윈강 노선은 6% 감소한 5만900TEU로 2위에 올랐다. 이 노선 역시 1년 전엔 4위였지만 경쟁 노선에 비해 감소 폭이 크지 않았던 덕에 순위 상승을 일굴 수 있었다.

3위는 영성대통해운의 평택-룽칭 노선으로, 1% 감소한 5만TEU를 수송했다. 15개 노선 중 감소 폭이 가장 낮았다. 4위와 5위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인천 거점의 칭다오 웨이하이 노선 2곳이 나란히 차지했다. 2022년 1위에 올랐던 인



천-칭다오 노선은 지난해 29% 감소한 4만6300TEU에 머물며 3계단 하락한 순위를 받아들였다.

반면 인천-웨이하이 노선은 2% 감소한 4만4000TEU로, 전년 9위에서 순위 상승을 달성했다. 일조국제해리의 평택-르자오, 연태해리의 평택-엔타이, 한중해리의 인천-엔타이가 각각 7~9위권을 형성했다. 평택-르자오 노선은 36% 감소한 4만1300TEU를 기록, 한중 카페리 항로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며 순위도 2위에서 4계단 하락했다. 또 평택-엔타이 노선은 18% 감소한 4만800TEU, 인천-엔타이 노선은 21% 감소한 3만8900TEU에 그치며 전년도에 비해 각각 한계단씩 내려왔다.

이 밖에 석도국제해리의 군산-스다오가 3% 감소한 3만 2400TEU로 10위, 평택일조해운의 평택-웨이하이 35% 감소한 3만100TEU로 11위, 진인해운의 인천-칭황다오가 4% 감소한 2만8300TEU로 12위, 대인해리의 인천-다렌이 5% 감소한 1만8500TEU로 13위, 범영해리의 인천-잉커우가 26% 감소한 1만2600TEU로 14위를 각각 기록했다.

평택-웨이하이 노선은 평택-르자오 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 폭을 보였다. 2022년 6월 말 중국 현지 부두 공사를 이유로 휴항한 단동국제해운의 인천-단동 노선은 휴항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제로 상태에 빠졌다. 기존 취항 선박이던 <동방명주6>(Oriental Pearl 6)호를 속

초-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취항한 JS해운에 매각한 데다 영성대통해운에 빌려준 <동방명주8>(Oriental Pearl 8)호의 임대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휴항 상태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16만명 웃돌던 월간 이용객 3만명대로 곤두박질

당초 기대했던 여객 사업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한중카페리항로의 지난해 여객 수송 실적은 14만2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여객 수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월간 실적은 아직까지 4만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을 달성했던 2019년의 월 평균 16만명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직까지 9개 노선밖에 여객 운송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적임은 분명하다. 현재 인천 거점의 웨이하이 칭다오 엔타이 스텐다오 렌윈강 5개 노선, 평택 거점의 르자오 웨이하이 엔타이 3개 노선과 군산-스다오 노선이 여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다렌을 운항하는 대인해리도 올해 4월 여객 수송에 다시 뛰어든다는 목표다.

여객 부진을 두고 업계에선 중국 정부가 여전히 한한령(한류제한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한중 카페리 이용객의 90%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對)한국 규제가 선사들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

선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문서 상으로는 한국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이공(소무역상)은 한 항차당 200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다 단체 관광객도 50명 수준을 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선사 관계자는 “중국 불경기와 한중 관계 악화, 여행 트렌드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데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더라도 예전처럼 선박을 타고 단체로 오기보다 소규모로 항공을 이용하고 있어 카페리 이용객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객 부진에 대응해 한중카페리협회는 양국 정부와 협력해 여객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는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기사제공: 코리아슈핑가제트(2월 19일) 이경희 기자

국내 가스계량기 검정 500만 시대 멀지 않았다

지난해 신품과 수리품의 가스계량기 총 검정 수량은 474만여 대를 기록함으로써 머잖아 500만대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계량기의 10년 전 총 검정 수량은 약 367만대지만 10년 만에 107만대가 증가했다.

가스신문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가스계량기검·교정협회를 통해 조사한 지난해 가스계량기 검정 수량(합격품)은 신품의 경우 305만5695대로 전년도의 278만9386대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G1.6부터 G4까지 가정용은 296만4839대, G6부터 G650까지 산업용 9만2802대가 검정에 합격했다. G1.6은 전년도보다 8.4% 감소한 반면 G2.5와 G4는 각각 15.6%와 25.4%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은 전체적으로는 7.1% 증가했으나 G10과 G25, G250을 제외한 8개 품목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C 및 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인 다가능 가스안전계량기는 지난해 3만8199대가 생산됐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신품 계량기 검정 수량이 증가한 것은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5년 교체

물량 증가와 10년 전 제품의 폐기에 따른 교체 물량 증가, 경기도 일부 지역의 특수계량기 교체물량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가스계량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매년 도시가스 사용세대 증가로 계량기 보급도 늘어남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제품의 폐기물량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와 일반 주택 등에 대한 신제품 물량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계량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특수계량기 교체 물량도 많을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가스계량기를 수입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용의 전체 시장은 증가했지만 대용량 수요처의 감소로 관련 업계는 매우 힘들게 한 해를 보냈다”며 “경기가 활발해짐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많이 나오기만 기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해 12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수리검정물량은 168만9432대로 전년도의 176만3956대보다 4.2% 감소했다.



가스계량기 수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리계량기의 품질은 신품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며 “현재 계량법에 따른 5년 주기의 수리검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LPG시설의 계량기도 수리검정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가스신문(2월 7일) 박귀철 기자

| 현장·단독 |

HJ중공업 시공 '춘천-속초 철도' 1공구 현장...무재해 목표로 힘찬 출발

천-속초 철도(춘속선) 터널 공사가 본격화됐다. 강원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춘천-속초 단선철도는 2027년 준공 예정이다. 16일 현재 HJ중공업이 담당하는 1공구는 공정률 5%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기구 설치 등 초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철도공단이 발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 동해 북부 지역과 향후 러시아철도 연결까지 염두에 둔 철도망 사업이다.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의 총 연장은 93.7km로 전체 8개 공구다. 8개 공구 중 1·7공구는 2020년 3월 국토부 고시 이후 2020년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T/K)로 적격자가 선정됐다.

춘천-속초 1공구는 춘천역부터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까지 7.4km이다. 공사비는 2884억원이다. 1공구의 특징은 춘천역 이후 1km부터 지하 최소 4.2m, 최장 35m 이상 의암호 하부 터널을 만드는 것이다. 춘천-속초 단선철도가 완공되면 설계속도 260km KTX-이음이 투입된다. 의암호(너비 5km)가 펼쳐진 HJ중공업 1공구 현장을 둘러봤다.

의암호 하부 통과 구간 가물막이 공사 끝내

“강원 춘천을 대표하는 의암호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협의, 친환경 공법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춘천-속초 철도건설 1공구 최장일 현장소장(56)이 강조하는 말이다.

HJ중공업은 1공구 현장에는 춘천역 구내공사 등 시설개량과 의암호 하부통과 터널 구간을 집중하고 있다.

HJ중공업은 춘천역 시설개량을 위해 승객이 없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야간작업을 시작, 3시간 동안 15여명이 궤도이설과 사인보드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공구는 춘천 의암호 하부 터널구간에 따라 설계 시공·일괄입찰(T/K)로 발주됐다. 이에 HJ중공업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모래 소재의 슈트파이를 적용해 가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HJ중공업은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터널 원형 직경의 1.5배인 개착박스(280m) 구간에 다그(ㄷ)자 형태의 지오투브를 설치했다.

의암호 지반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하드락 TBM 공법 적용

현장에 투입되는 하루 작업자는 60여명이다. HJ중공업 현장 직원들이 1공구 구간 중 터널 굴진과 장비 등이 들어갈 수 있는 환기구 2개소 작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1공구의 환기구는 2개소로 춘천시 우두동과 의암호 아래에

시공된다. 우두동 환기구는 지하 12m에 직경 19.2m 규모다.

1공구에서는 의암호 지하로 진입하는 U-type 구조물(290m)과 터널구간 6855m를 시공하게 된다.

터널 구간은 의암호 아래를 통과하는 하저터널 995m, 터널 5305m, 개착 박스와 파이프 루프 터널 555m로 구성된다.

최 소장은 “북한강을 의암댐으로 막아 형성된 의암호를 지나는 하저터널은 최소 토피고 4.3m의 고난도 시공 구간으로 개착 박스공법을 포함해 갱내 차수 그라우팅, 강관 보강 그라우팅, 지상 보강 등을 통해 물 침투를 방지, 지반 변위를 억제해 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저터널 이후의 육상터널 지역은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된 기암반 통과 구간으로 지반 특성에 맞춰 ‘하드락(Hard Rock) TBM(Tunnel Boring Machin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드락 TBM 시공은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조립하며 굴진하지 않아 실드 TBM공법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또 터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반 보강 및 구조물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암호 주변 축사 등 정원시설에 대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다.

안전 또 안전...HJ중공업, 4년 동안 '중대재해 ZERO' 이끌어

이날 현장 사무소에 있는 2024년 안전보건경영 목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지속 달성'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HJ중공업은 안전보건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2024 4대 추진 계획'을 설정했다. 4대 추진계획은 위험성평가 중심 예방활동, 고위험 작업 집중관리, 안전보건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내실화 등이다.

HJ중공업 허철균 공무팀장은 “본사가 관리하는 전국 6개 철도현장에는 4년동안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 지만 방심하지 않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속초 1공구는 철도안전대상 사례에 ‘음성 안내를 통한 크레인 안전관리’를 제안해 2023년 강원본부 분야별 우수상을 수상했다.

HJ중공업은 2024년 공정표를 기준으로 고위험작업 5가지를



“TOP-5”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수립한 TOP-5는 중량물취급 및 중장비가 동원되는 흙막이 가시설, 지하굴착 및 굴착도 운반, 화약을 사용하는 발파작업, 수중에서 작업하는 지오투브 설치, 철도 운행선 인접에서 시행한 궤도 철거·설치 작업 등이다.

춘천역 도착 열차, 선로변경 없이 그대로 용산역으로 출발

1공구 현장은 춘천역 역사가 포함된다. HJ중공업 1공구 현장 직원들은 기존 춘천역 이용객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춘천역에 도착한 열차가 선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용산 방향으로 출발하는 ‘자선착발’ 방식으로 변경, 운행선과 공사 구역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현장 작업자 안전을 확보했다.

아울러 1공구 현장은 지역 지자체인 강원도와 춘천시 관계자와 지역 상생발전 방안에 협의하면서 건설장비와 가설자재, 부자재 등은 지역 전자재 회사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소규모 토목공사에는 강원 지역 건설사업자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있다.

최장일 소장은 “춘천-속초 철도연결에 따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GTX 현장 등 복잡한 도심지 구간에서 공사를 시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중대재해 한 건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암호 하저터널 및 난공사 구간인 만큼 첫째도 둘째도 안전! 안전! 만이 품질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그는 인터뷰가 끝나자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기사제공: 철도경제신문(2월 16일) 류창기 기자

‘암 백신’ 눈 앞에 다가오다

새로운 암 백신의 등장이 눈 앞에 다가왔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암 백신 UV1의 패스트트랙 신청을 승인했다. UV1은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에게 읍 디보(성분명 니블루맙)와 여보이(이필리루맙)와의 삼중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승인 기반은 임상2상 NIPU 연구 결과다. 연구에는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악성 흉막 중피종이 발생한 118명의 환자가 포함됐다. 이들 중 77.1%는 악성 흉막 중피종의 상피 아형 환자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2년 동안 읍 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받았고, 읍 디보+여보이+UV1 투여군에게는 치료 첫 3개월 동안 UV1이 8회 투여됐다.

연구 참여자 53.4%는 면역억제제에 낮은 반응성을 보인 만큼, PD-L1 음성 중앙 생검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이 5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의 1차 목표점은 무진행생존(PFS)으로, 주요 2차 목표점은 전체생존(OS)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UV1+읍 디보+여보이병용요법군은 읍 디보, 여보이 단독요법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전체 생존(OS) 개선 효과를 보였다(HR 0.73; 95% CI 0.53~1.00; P=0.0985, P=0.197).

자세히 보면 17.3개월 추적관찰 결과, UV1 투여군의 OS

중앙값은 15.4개월로 집계된 반면 읍 디보, 여보이 각각 단독요법의 OS 중앙값은 11.1개월에 불과했다.

아울러 UV1+읍 디보+여보이군에서 중앙 크기 30% 이상 감소로 정의한 객관적 반응률(ORR)은 31%로 읍 디보, 여보이 투여군(16%)에 비해 2.44배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OR 2.44; 95% CI 1.35~4.49; P=0.028).

안전성은 모든 군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앞서 발표한 타라인 결과에 따르면 UV1+읍 디보+여보이군이 유의미한 양의 해택은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하지 못하면서 1차 목표점을 충족하지 못했다.

UV1 개발사 얼티모박스는 “FDA의 이번 패스트트랙 승인은 우리의 암 백신 접근 방식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얼티모박스는 추후 임상2상 INITIUM의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메디칼업저버(2월 14일) 양영구 기자

대화형 뉴스서비스 '빅카인즈 AI' 오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대화하듯 뉴스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빅카인즈 AI'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

빅카인즈 AI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다. 챗GPT 3.5를 기반으로 뉴스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뉴스를 보여준다.

또한 답변 생성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인 뉴스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생성형 AI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환각현상을 보완했다. 또 최신 뉴

스를 활용하여 시의성 높은 답변을 생성하고, 뉴스에 언급된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답변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를 클릭하면 관련된

인물, 장소, 기관 등의 관계도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 또 원하는 내용을 요약, 번역하거나 맞춤법을 검사하는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 편의성



을 높였다.

'빅카인즈 AI'는 빅카인즈 사이트(www.bigkind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지난 2월 19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문체부는 워킹그룹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어린이 하루 평균 미디어 3시간 이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지난 2월 6일 발간했다.

2023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 만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텔레비전·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간은 약 3시간(185.9분)으로 나타났다.

각 기기별 이용 시간은 텔레비전 1시간 13분, 스마트폰 1시간 3분, 태블릿 PC 38분, 컴퓨터 12분이었다. 코로나 기간(2020년 8월~10월) 실시된 1회차 조사에서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이 약 4시간 45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시간 40분가량 감소한 것이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만 2~4세 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만 3~4세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184.4분이었다.

어린이의 57.7%가 24개월 이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시작했고, 2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만 2세 미만 아동이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이용을 포함하여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에 비하면 국내 만 2세 미만 아동의 전자기기 화면 노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기기는 스마트폰(77.6%), 스마트 TV(65.6%), 태블릿PC(57.1%), 컴퓨터(24.7%), 일반TV(17.1%), 게임 콘솔(16.6%), 인공지능 스피커(12.3%) 순이었다. 컴퓨터 이용률은 인쇄매체 이용

률 25.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비스 및 플랫폼 이용률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77.2%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OTT 서비스(31.3%), 포털 및 검색 엔진(24.2%), 메신저 서비스(21.9%), 메타버스 플랫폼(18.3%), SNS(6.1%)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제작 경험 문항을 신설했는데, 그 결과 어린이의 17.6%가 온라인 동영상 제작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9세 아동의 경우 동영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23.9%였다.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을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아이가 할 일을 다하거나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2020년 대비 보호자 중심 동기('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으려고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 전시와 장터, 체험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난 2월 7일에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으며, '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함께 사는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업인 오늘전통창업, 한



복·한지 등 산업 진흥, 전통놀이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결과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설날의 다정한 이야기, 정월의 정겨운 풍경'을 주제로, 장응복 공간 연출가와 협업해 특별한 공간을 선보인다. 먼저 문화역서울284의 중앙홀을 새해 시작과 함께 행복과 소망을

기원하는 공간 '집·집'으로 만들었다.

전시-체험 공간 '뽕뽕마당'에서는 전통놀이 관련 아카이브와 함께 윷놀이와 딱지치기, 연날리기 등 현대화된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별별 장터'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통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올해 설날에 청와대의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2월 10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이해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의 역사·문화·자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행사 기간 동안 1일 평균 1만 5천여 명(연휴 3일 총 관람객 45,724명)이 청와대를 관람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

는 다례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되었고, 3대 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는 등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설 연휴에 청와대를 방문해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차 문화를 배우고 다식을 직접 만들며 특별한 추억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어느덧 내외국인 500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앞으로 청와대를 더욱 방문하고 싶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원사 동정

가스신문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 안전 세미나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이 오는 3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1(4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압가스 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고압가스제조총연합회,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가스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행사는 '제14회 서울국제가스&수소산업전(GAS KOREA 2024)' 기간에 열린다.

주제발표는 △중처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실 조상현 실장) △고압가스의 중처법 대응 매뉴얼(고압가스총연합회 이영식 전무) △독성가스용기 잔가스처리와 안전관리(가스안전공사 산안센터 조완수 센터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 줄 계획이다.

참석 대상은 전국의 고압가스중전업체 대표자를 비롯해 안전관리책임자 등이며, 참가비는 따로 받지 않는

다. 자세한 사항은 GAS KOREA 2024 행사 홈페이지(gaskorea.imweb.m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839-4000

세무사신문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식을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권익과 밀접한 세제개선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정책 건의 공조, 소상공인 경영 애로 개선, 정보교류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신문

ICT폴리텍대학 학위수여식 참석



정보통신신문 함정기 발행인이 지난 2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ICT폴리텍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20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함정기 발행인은 ICT폴리텍대학 전임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자리에는 ICT폴리텍대학 강창선 이사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서성일 국립전과연구원 원장, 최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회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ICT폴리텍대학은 △정보통신학과 27명 △스마트통신학과 19명 △AI영상보안학과 21명 △IT융합학과 21명 △정보보안학과 16명 등 104명에게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중소기업뉴스

노란우산 제휴카드 리뉴얼 출시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신한카드와 리뉴얼한 노란우산 제휴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뉴얼 출시될 노란우산 제휴카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형태, 카드 이용 성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가맹점, 병

원·약국, 대중교통, 자동차서비스 등의 생활 밀착형 분야뿐만 아니라 할인점,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세무기장료 등 주요 사업성 경비 분야에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등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CMN Cosmetic Marketing News

중국 라이브커머스 아카데미 프로젝트 1기 모집



주간신문CMN(발행인 조병호)이 중국 비즈니스 전문 기업 스타포스와 손잡고 함께 '중국 라이브커머스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참가자는 타오바오·샤오홍슈 왕홍인 이정아 스타포스 기획팀장으로부터 실무자 과정 교육을 수강하고 중국 항저우의 알리바바와 도우인 본사, 유명 MCN사 등을 방문해 라이브커머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황을 탐방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왕홍들과는 브랜드 판매를 의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02-2628-5454

한의신문

라디오 홍보 캠페인 실시

한의신문(발행인 홍주희)을 발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14일 까지 한의약 치료를 통한 명절증후군 극복을 주제로 라디오 홍보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2차 라디오 홍보캠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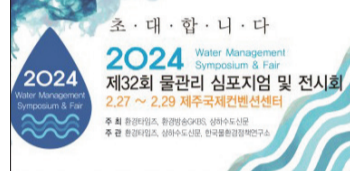


인을 통해 hGMP 인증을 받은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캠페인은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희입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식약처의 hGMP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전국의 라디오 애청자들을 찾아간다.

환경타임즈

제32회 물관리 심포지엄



환경타임즈(발행인 유철)는 '제32회 물 관리 선진화 심포지엄'을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물 관리 효율화 및 물 산업 활성화"라는 내용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장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관망인프라 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에 관한 적용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물 관리 우수 지자체와 개인 수여 대상자에 대한 포상식도 개최식에 맞춰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환경타임즈에서 창간 32주년을 맞아 물 관리 우수 공로자를 추천받아 '물관리 달인'을 선정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박두환	명예회장·편집인 양영근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이한구·백용태·정재환·김관홍	상임고문 방재홍	감사 이관치·허과현
이사 이상호·이근호·양기방·박연준·오경섭	고문 한기호·함용현·유태우·이덕수	
강현욱·강신영·홍준·김광택·방두철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34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4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시간)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온수동)
Tel. 02) 2684-3377



차별화된 시스템

2024년 1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01.01.~2024.01.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00	시사매거진 뉴스	(주)시사매거진
서울 다50799	VIP롯데아멕스법인카드	(주)한틀
서울 다50798	한국장애인신문	(주)한국장애인신문
서울 다50796	대한민국 마약퇴치운동협회	대한민국 마약퇴치운동협회사
서울 다50797	조선왕조TV	조선왕조TV사
경기 다50776	더코리아플러스이코노미	더코리아플러스이코노미사
경기 다50775	안산장애인신문	시민사회적기업(주)
경기 다50773	대한기독교저널	대한기독교저널사
경기 다50774	여주저널	(주)여주저널
충남 다01395	더코리아플러스공감	더코리아플러스공감사
전남 다00447	글로벌저널	(주)글로벌저널
전남 다00446	완도라이브	(유)완도라이브

■회원사 발행인 칼럼 | 팜앤마켓 최서임 발행인

SECA 국회 토론회와 앤젤솔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과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관련 “위기의 화훼산업, 함께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어떤 근거와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화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인사말만 하고 모두 자리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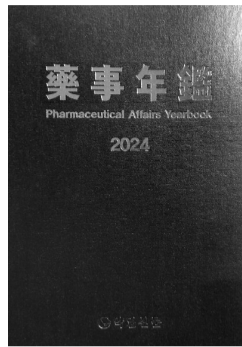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화훼 농가들은 위기의 화훼산업을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토론회를 이어갔다. 새로운 대안이 딱히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아 그냥 토론회장을 나왔다.

제2소회의실을 걸어 나오는데 감동적인 그림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용백 화가의 ‘Angel Soldier(엔젤솔저)’이었다. 작품 속에 있는 수많은 꽃들의 표정을 보고 있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서 총부리가 보여 화들짝 놀랐다. 그래서 작품 설명을 보니 Angel Soldier는 이용백 화가의 대표 작품으로 꽃과 군복, 평화 혹은 숨겨진 전쟁, 화려함 속에 숨겨진 잔인함과 같은 이러한 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에 공감했다.

책자발간

약업신문 藥事年鑑(약사연감) 2024년판

약업신문(발행인 함응헌)이 ‘藥事年鑑(약사연감) 2024년판’을 발간했다. 약업신문은 지난 1974년 이후 해마다 약사연감을 출간해 오고 있다. 약사연감은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최종적으로 업계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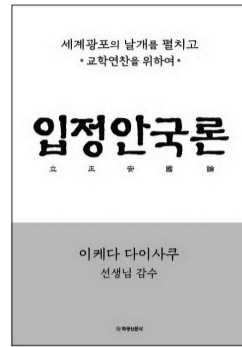
최신 2024년판 약사연감은 △제약/바이오 △행정/제도 △건강기능식품 △해외약업 등 총 4부로 구성했다. 부록으로 약업계 주요인사 3천여 명의 최신 프로필이 포함된 인명록이 함께 수록돼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해석은 물론 최근 연도별 의약품 생산실적과 주요 제약 바이오기업의 경영분석,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의약품 전반의 최신 통계 자료와 변화된 약사제도 전반에 관한 해설과 전망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제약바이오 의약·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각종 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경영전략 수립시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격: 130,000원
문의: 02-3270-0114

화광신문 입정안국론

화광신문(발행인 정재환)은 ‘입정안국론’을 발간했다. 이 책은 니치렌 불법(日蓮佛法)의 핵심인 ‘입정안국(立正安國)’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학연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문에서는 입정안국론의 어문과 상세한 해설,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의 지침이 담겨 있으며, △재난의 근본 원인을 밝히다 △재난의 유래를 설하는 경문을 인용하다 △방범(防法)이 망국(亡國)의 원인임을 밝히다 △깨닫고 입정안국을 맹세하다 등 10개 단으로 구성됐다.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사회’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입정안국의 실천입니다.(중략) 젊은 여러분은 그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입정안국을 철저히 실천할 때, 부처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라며 입정안국의 실천을 당부한 바 있다.

화광신문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청년교학테스트’의 출제 범위가 입정안국론인 만큼 청년부와 청년육성에 힘쓰는 회원의 필독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격: 7,000원
문의: 02-3282-1825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2022대전조정1/2 각 손해청구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해당 발언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방송해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한 캠핑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소방관들이 캠핑장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는 등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하면서, 캠핑장 관계자인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 후 방송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자신의 음성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

혔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통화 내용을 방송했으며, 음성을 변조하긴 하였으나 사건의 개요, 통화자의 역할과 어조 등을 고려하면 직장 동료들이 신청인이 제보자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보도 이후 담당업무 변경 등 고충이 커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음성 변조 조치를 한 후 방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해 공개하는 경우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양측이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금 400만 원 지급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3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 | | | |
|--------------|---------|--------------|--------|
| 3월3일(1992년) | 한국금융신문 | 3월15일(1999년) | 버섯정보신문 |
| 3월4일(2021년) | 강소기업일보 | 3월21일(1967년) | 의협신문 |
| 3월7일(2016년) | 영농자재신문 | 3월25일(1976년) | 대한교육신문 |
| 3월8일(1988년) | 세무사신문 | 3월25일(1988년) | 약사신문 |
| 3월10일(1999년) | 주간신문CMN | 3월29일(1954년) | 약업신문 |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